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2년 3월 제265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추양천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 · 편집 · 인쇄인 : 윤석길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차기회장 선출, 예전처럼 다시 화합하는 동문회 만들터"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윤석길 감사(16회) 위원장에 추대

제37회 총동문회정기총회가 3월 25일 열려 전국 각지에서 온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마무리 했다. (관련기사 2면)

37회 총동문회정기총회가 열린 3월 25일, 강신열 18대 회장의 연임 등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동문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불협화음이 일어 많은 동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연임의사를 표명한 강신열 회장과 일부 동문들이 추천을 받은 최동준 동문(21회) 간에 경선 방식의 회장 선출과정에서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한 동문들과 추천된 동문이 있으면 경선도 가능하다는 동문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계속됐다.

이에 역대 총동문회 회장들을 비롯한 고문들이 차기 회장 선출때까지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4월 8일 오후 4시 모교 본관 나르샤실에 모였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는 심상정. 송주영, 백운길 고문(이상 1회)과 이우정 고문(3회), 임용호(4회) 고문, 윤대진 고문(5회), 이원승 고문(8회), 임세환 고문(9회), 전종현 고문(12회), 박대용 고문(16회) 및 서한수 자문위원장(3회)과 총동문회 윤석길(16회) 감사와 강신열 18대 총동문회장(14회)과 한흥교 사무총장(16회)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고문 등 동문들은 총동문회 회장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동문단합과 동문회 운영을 위해 차기회장 인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윤석길 총동문회 감사(16회)를 추대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19대 회장 및 감사를 추천하는 것과 후임회장 선출 때까지의 총동문회 운영 전권을 위임받았다. 추대된 윤석길 총동문회비상대책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예전처럼 다시 화합하는 동문회로 돌아가 총동문회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총동문회 고문단회의가 4월 8일 오후 4시에 모교 나르샤실에서 열렸다.

그동안 우리 충남기계공고는 선배들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동문회의 전통을 세워왔다.

이제 모두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번 회장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동문들간의 잡음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된 비상책대위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대결과 반목이 없는 서로 아끼고 돕는 상생동문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충기인이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총동문회편집위원회 –

인 사

"충남기계공고 총동문회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윤석길(16회)입니다."

저는 고문님들이 현 사태를 수습하라며 맡긴 비대위원장직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금번 총회 이후 동문님들의 총동문회에 대한 진정어린 애정과 관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비상대책위를 지켜봐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질책해 주십시오. 잘하면 칭찬도 곁들여주시고 잘못하면 따끔하게 회초리도 들어주십시오. 조만간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고 그 내용을 공지하겠습니다. 앞으로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총동문회 밴드와 홈페이지에 빠짐없이 공지하여 모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4421-6905 이고 메일주소는 ysk2150 @naver.com 입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연락주십시오. 동문님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동문회비상대책위원장 윤석길 올림

전국에서 온 동문들 '동문화합' 위해 노력 강조

〈제37회 총동문회정기총회〉 '자랑스런 충기인상' 백두현(13회) 동문 수상

총동문회 고문 등 선배들이 정기총회도중 휴회를 요청하고 퇴장한 일부 동문들의 빈자리를 쳐다보며 걱정하고 있다.

회장과 감사 임원 선출 후 마무리 인사하는 서한수 임시의장.

충기총동문회 제37회 정기총회가 모교 본관 세미나실에서 3월 25일 저녁 6시 50분에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는 오응수(1회), 송주영(1회), 이우정(3회), 전종현(12회) 고문과 서한수 자문위원장(3회), 송의석 자문위원(3회) 등 95명의 동문과 모교 이종업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결산과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동문님들께 묵념을 드리고, 한흥교 사무총장이 내빈 소개를 했다.

강신열 총동문회장은 인사에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시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화합의 동문회, 그리고 단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시상식에서 전임 17대 박대용 회장 때 결정한 후 코로나로 총회가 열리지 못해 전달하지 못했던 '자랑스런 충기인상'과 감사패, 표창패를 강신열 회장이 전달했다.

자랑스런 충기인 상은 대덕테크노벨리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한 백두현 동문(13회)이 수상했고, 김광시 전 13회동문회장과 최동준 21회동문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최병무 23회 졸업30주년 추진위원장과 임광연 23회동문은 참석하지 않아 표창패를 추후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종업 모교 교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포함하여 새로이 들어설 최적화된 교육시설과 4차 산업 대비 학과 재구조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총동문회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 뿐만 아니라 충기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37회 정기총회에서는 전회 제36회 총동문정기총회 회의록 확인과 2021년도 사업보고(총동문회 및 모교 활동사항 보고에 이어 부의 의안으로 제1호 의안 2021년도 결산보고의 건으로 특별회계(잔액 378,691,548원)와 일반 회계(잔액 81,959,882원)의 결산을 상정했다.

또한 제2호 의안으로 2022년도 예산(안) 심의 건으로 특별 예산 수입(9,500,000원)과 지출(모교 후배 장학금 4,500,000원), 일반 회계 수 입 (272,600,000원)과 지출 예산(272,600,000원) 을 각각 상정했다.

1호 의안과 2호 의안은 무난하게 통과됐다. 이어 제3호 의안으로 총동문회 회장 및 감사 선출 건이 저녁 7시 44분에 상정됐다.

강신열 회장은 "임시 의장 추천을 해달라"고 말했고, 곧 이어 14회 동문이 "14회 박찬호 동문을 추천한다"고 하자 바로 "박찬호 동문이 선출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동문들이 "충기총동문회 임원선출은 관례에 따라 덕망 높은 선배들 중에서 추천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했다"는 이의 제기로 서한수 자문위원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자 강신열 회장은 의사봉을 넘기고 곧이어 회장 선출 건이 상정됐다.

연임의사를 밝힌 강신열 회장이 추천되고, 뒤이어 최동준 총동문회 부회장(21회동문회장)이 추천되자, 이에 대해 일부 동문들이 강 회장이 연임의사를 밝혔으니 회장으로 연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또 다른 동문들이 나서서 "'회칙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연임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발언이 이어졌고, 이에 반발한 일부 동문들이 휴회를 요청하자, 서한수 임시의장이 "10분 간 휴회"를 선포한 직후 일부 동문들이 정기총회장에서 퇴장했다.

서한수 임시 의장은 회의 속개를 선포하고 강신열 회장의 부재속에 강회장 연임에 대한 건을 참석 동문들에게 물어 다수의 반대로 연임이 부결됐다.

이후 신임 회장 선출에 들어가 제19대 총동문회장으로 최동준 동문이 거수로 선출됐다. 감사에는 이재범(8회), 윤석길(16회), 강노산(24회) 동문이 선출됐다.

참석 동문들은 단체 사진을 끝으로 저녁 9시 18분 제37회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마무리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광 고

"동문회비 월 1천원 이상 자동이체운동에 동참합시다!"

오래 전부터 매월 2만원씩 총동문 발전기금을 자동이체 해놓고 있는 윤석길(16회.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장)동문은 '동문회비 매월 1천원 이상 자동이체 운동'을 제안하고, 이 운동이 전 동문들에게 확산되기를 희망했다.

윤석길 비대위원장은 "동문들이 십시일반 내주시는 쌈짓돈이 전체 동문을 단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열띤 논쟁 벌이며 총동문회 발전 논의 후 총회 마쳐”

동문 몇분이 오셨나 숫자 세기

국민의례, 국기에 대해 경례

순국선열과 먼저 가신 동문님들께 묵념

자상스런 충기인상과 감사패 전달

정찬목 12회 동문 발언

송주영 총동문회 고문 발언

김광시 13회 동문 발언

난상 토론을 유의깊게 지켜보는 동문들

안건에 대해 거수로 의사 표시

한흥교 사무총장이 일부 동문 퇴장 후 서한수 임시의장과 대책을 상의하고 있다.

“동문회보 없어지면 연회비도, 발길도 끊길까 걱정된다”

정기원(자동차과 8회) “코로나로 5개 동문회 열지 못해 답답, 일상회복 기대”

옥천동문회 제주여행 2014년 12월 13일

자형회(자동차동문회) 삼천포유람선 2018년 5월 12일

우리 모교를 1973년에 자동차과 8회로 졸업한 것이 얼마 전인 듯 느껴지는데, 5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네요. 광산과, 방직과, 자동차과, 전기과, 기계과, 화공과 6개 과의 충남공업고등학교 명칭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로 바뀌면서 기계과와 전기과를 제외하고 자동차과 등 네 과가 12회 졸업생을 끝으로 없어지게 되었을 때는 무척이나 아쉽고 서운하기도 했지요. 당시에 많은 동문 선후배들이 산업 전 분야에서 각 기관과 회사에 포진하여 엄청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졸업한 과가 없어지게 된 것이 서운한 탓에 개인적으로 동문 선후배들과 여러 모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발생하여 3년이 된 요즘은 정기 모임을 갖지 못 하고 동문회보를 통하여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점점 늘어나는 동문들의 활동상황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동문회 행사도 비대면으로 하게 되고, 급기야 지난해 어려워진 경제탓도 있겠지만, 총동문회 연회비 발전기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동문회보가 존폐위기라는 소식을 접하고 몇 차례 회비를 내면서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충기 동문들의 자랑인 동문회보 설송소식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어느새 3월호까지 265호를 발행하여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월호에 포항에 사는 20회 김동로 후배님이 언급한 것처럼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간 동문회보를 발행하는 일은 대단한 긍지를 갖게 하는 성과입니다.

동문회보에 연회비 발전기금을 납부한 명단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반가운 감정이 생기는데, 만약에 동문회보가 없어지면 연회비 입금도, 발길도 끊기고 그나마 소식도 안부도 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걱정이 앞서, 동문들께 다시 한 번 연회비 입금에 동참해주 실것을 호소합니다.

모교를 사랑하고 동문들이 좋아 5개의 동문 모임에 참가하여 형제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 항상 충기인임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못 만나지만 카톡과 밴드를 통해 안부를 전하고 애경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문회보 지면을 통하여 5개의 동문모임을 소개하고 그리운 얼굴들과의 추억이 서린 사진을 올려봅니다.

먼저 자동차과동문회는 1회 송주영, 심상정, 이희광, 조관현 선배님과 12회 후배들까지 회원으로 이재진 회장님(7회)을 모시고 제가 운영총무를 맡고 9회 김상현 후배가 재정총무를 맡아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인 옥천동문회는 조원걸 회장님(5회)과 이재열 총무(16회)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충자회는 6회부터 12회까지 매년 돌아가며 운영진을 맡고 있는데 현재는 12회 김유동 회장과 김기중 총무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팔팔회는 저처럼 8회 졸업 동기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데 김동수 회장, 송영준 총무, 황병식 재무가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충현회는 저처럼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유승익 선배님(6회)을 고문으로 모시고 제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은욱 후배(24회)가 총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모두 보고 싶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일상을 회복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예전처럼 월례 모임을 갖고 밤늦도록 마스크 없이 대포 잔을 나누며 맘껏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졸업한지 50년 된 정기원 올림 –

충자회 부부동반 친목모임 2018년 11월 9일

충현회 월례회 2019년 1월 2일

팔팔회(8회반창회) 무주목장찜질방 2019년 9월 29일

“자부심 넘쳤던 충기인 명예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수도권 동문들 총동문회 정상화 촉구 호소문〉 소중한 존재가치 동문회보 즉각 발행하라

수도권동문연합회(안산동문회, 인천동문회, 경기북부동문회, 경기동북부동문회, 충수회, 우경회, 서울교육공무원동문회)는 총동문회의 파행과 분열을 지켜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안양. 수원 그 외 수도권 수십 개의 기수별, 직장별 동호회에서도 우려를 전달해 왔다.

“동문은 대전에 국한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분열되고 표류하는 총동문회를 어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이구동성이다.

“상호 비방을 멈추고 하나 된 모습을 보일 때 전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고 참여하는 것이다” - 육정관15회 안양동문회 부회장.

“대전중심 총동문회는 대표성을 상실했다. 가장 많은 동문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총동문회를 이끌고 가자” - 남상규(20회) 안산동문회 장학회장.

어디 수도권 동문들만 분개하겠는가? 전국 방방곡곡 타향살이 설움에도 충기인이라는 자긍심 하나로 살아가는 동문들의 가슴에 비수를 당장 거둬라. 여느 동문보다도 선후배간의 극진한 정을 자랑했던 우리들이다. 어디서나 떳떳했고 자부심 넘쳤던 충기인들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자중하라.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다 음>

하나. 즉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라.

작금의 혼란이 야기됨은 누적된 결과의 산물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오랫동안 고질화된 병폐를 끊어내고 변화하고 받아들일 때가 온 것이다. 기수를 망라하는 중립적인 통합의 비대위를 구성하여 오로지 동문만을 염두에 두고 백년대계 흔들림 없는 원칙을 만들어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라.

둘. 동문회보를 즉각 발행하라.

동문회보는 충기인의 상징이요 자부심이다. 모교에 대한 애정 과 일체감 소속감 단합의 총체다. 동문회보의 가치는 총동문회 존립 존재의 이유다. 전시에서도 밭을 갈고 학교가 문을 열듯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발간은 멈출 수 없다. 대전권에서는 모교가 생각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지방에서 받아보는 동문소식지의 감흥을 아는가? 한 달을 살아가는 힘이다. 원동력이다.

셋. 어떠한 경우라도 물리적 행동은 안 된다.

선후배 간의 존중과 배려는 최상위에 규범이다. 동문전체를 모멸감을 주고 동문회존치의 가치를 훼손한 파문의 당사자는 즉시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차제에는 재발방지책으로 원스트라이크제를 적용하여 일벌백계로 동문회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고 퇴출시켜라.

넷. 위기는 기회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인연은 여타 인연이 아니다. 특수목적고에서 만났다. 산업발전의 동냥들이었다.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런 大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이다. 전국 어디서나 각계각층에서 최고임을 자부한다. 일보후퇴 이보전진 이라고 했다. 십보 전진하자.

2022년 4월 5일

김용진 (11회) 경기북부동문회장
유재환 (11회) 경기동북부동문회장
조 용 (12회) 서울교육공무원동문회장
조병화 (15회) 안산동문회장
김창국 (18회) 인천동문회장
이도열 (18회) 충수회 회장
윤중길 (19회) 우경회 회장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편집실 ☎(042)252-5656

“봄의 전령사 꽃들이 놀러오시라 유혹하고 있어요”

오원석 사진작가(21회) 주말 산책 한밭수목원 풍경

“자신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2022학년도 신입생 260명 입학식, 총동문회, 기룡전기 등 장학금 지급

2022학년도 모교 신입생 입학식이 3월 2일 오후 2시에 본교 2층 시청각실 및 1학년 각 반 교실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 260명은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반에서 담임선생의 지도아래 방송실에 꾸려진 특별방송을 들으며 입학식을 진행했다.

입학식은 국민의례, 신입생 대표 전기과 지윤호 학생의 신입생 선서, 이종업 교장의 입학 허가 선언, 장학금수여 순서로 진행됐다.

장학금은 총동문회 20명, 기룡전기 5명, 테크노 충우회 20명 등 모두 55명이 받았다. 이종업(모교 14회) 교장은 “충남기계공고에 입학한 260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 “고말했다. 이종업 교장의 축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봄! 희망의 계절에 설렘과 희망을 가득 안고 충남기계공업고에 입학한 신입생 260명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입학식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학부모님 및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신입생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낯선 환경과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학사 일정, 그리고 새 친구들과 적응하기 위해 불편하고 힘들 것입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긍정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자신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밀고 가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라고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한 것처럼, 희망은 믿음이며 확신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각 가정의 귀한 자녀이자 이 사회와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대신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충남기계공업고 학생이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학교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3년 동안 기량을 갈고 닦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본교 교직원들은 한 마음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처음 교복을 입고 충남기계공고 학생으로서 가졌던 마음가짐으로 고교 시절을 의미있게 엮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찬목 편집위원(12회) –

“K9 자주포조종, 정비 현장실습 지원”

모교, 육군포병학교와 기술인력 업무협약

모교(교장 이종업)는 육군포병학교(교장 소장 방성대)와 3월 16일 군 특성화 학생 K9 자주포조종-정비 현장실습교육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모교는 이로써 국방부 지정 군 특성화고교로 2021년 7월 지정되어 육군 자주포운용과 기갑조종 병과에서 임기제 부사관 양성을 목표로 2022학년도 3학년 44명에게 군 입대 전까지 군에서 소요되는 첨단장비 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교육하여 학생들의 강인한 체력과 굳건한 정신력을 키워나가는 다양한 진로탐색을 모색해왔다.

군 특성화고교는 군 특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정 시간 교육 후 졸업과 동시에 무시험 부사관 임관의 특혜가 주어지며, 고등학교 재학 중 장학금이 지급된다. 군 복무 중에는 전문분야에 보직되어 경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고 장기 복무시 별정직 9급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월급과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전역 후에는 우수 기업체 취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4차 산업 대비 학과 재구조화, 최첨단 실습실 구축 및 운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으로 학교 공간 혁신, 대전혁신도시 고졸 특별 채용에 최적화된 공기업, 공무원반 운영 등이 그것이다.

이종업 교장은 “역사와 전통을 첨단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최근 급변하는 산업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찬목 편집위원(12회) –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일상을 시로 담아”

모교 지킴이 유희동 시인 두번째 시조집 발간

모교 지킴이로 15년째 근무 중인 유희동 선생이 올 해 3월 두 번째 시조집을 발간했다. 충남 청양이 고향인 유희동 선생은 경찰공무원으로 30년 근무 후 2003년 정년했다. 평생을 보낸 공직을 나온 후 4년 동안 등산이나 하면서 무료하게 보내던 중 2008년에 충남기계공고에 학교지킴이로 근무하게 되면서 시조와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 모교에는 시인이며 수필가, 시조시인인 박봉주 행정실장이 학생들을 상대로 시조 강습을 하고 있었는데, 유희동 선생은 박 실장의 권유로 문학회에 가입하여 5~6군데에서 공부하며 시조 창작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2년 계간 ‘미래문학’에 시 부문에 등단했고, 2016년 ‘가람문학’시조 부문에 등단했다. 항상 시인들의 신간 책을 받으면 “나도 언젠가 시집을 내자”고 다짐했던 유희동 선생은 2018년 7월에 첫 시조집 ‘파란 하늘이 깊다’(오늘의 문학사 발간)라는 제목의 시조집을 발간한데 이어, 2022년 3월에 두 번째 시조집 ‘거울 속에 피는 꽃’ (오늘의 문학사 발간)을 펴냈다.

“웃음으로 핀 꽃은 행복한 마음의 꽃/거울은 어디서나 먼저 웃지 않는다/가족이 웃으며 생활할 때 거울도 함께 웃네”라는 시의 일부 내용이 교훈을 준다.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있고, 학교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젊은 학생들과 함께 하니 젊어지는 것 같다”는 유희동 선생은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일상을 관찰하여 시로 표현하고 있다. 유 선생은 “나이 들수록 몸은 물론 머리도 활발하게 움직여야 건강에 좋다”고 말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수입 현황

기간 : 2022년 1월 19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2022년 1월 19일~1월 31일까지

방	1	박만영	50,000	기	13	정진국	20,000
광	1	조남간	20,000	기	14	강신열	1,000,000
전	3	오성민	50,000	기	14	황태연	20,000
방	3	윤백현	20,000	기	15	배진구	20,000
자	3	이만근	20,000	기	15	이장수	50,000
자	4	김영진	50,000	기	15	이재규	100,000
방	5	라길찬	20,000	기	16	박대용	20,000
광	5	윤석용	20,000	기	16	박영호	20,000
자	5	이용달	20,000	기	16	여운영	20,000
방	7	김봉규	100,000	기	16	윤석길	20,000
방	7	오예진	20,000	금	16	이재열	20,000
전	7	이웅재	20,000	배관	16	임재록	20,000
자	7	조봉호	20,000	기	16	최현주	20,000
전	8	손월호	20,000	전	16	한흥교	20,000
자	8	송영준	50,000	기	16	황선영	20,000
전	8	유상준	20,000	기	17	김택균	20,000
전	8	이종천	50,000	기	17	윤영문	100,000
방	9	김승제	20,000	기	17	현정배	20,000
전	9	이선기	20,000	기	18	김영하	20,000
자	9	임용태	20,000	전	18	오충석	20,000
기	9	홍성헌	20,000	전	18	최경원	20,000
기	10	권선웅	20,000	기	19	김용호	20,000
전	10	김용대	20,000	기	19	박정희	20,000
화	11	김연승	20,000	기	19	배영환	20,000
광	11	김용선	50,000	기	21	문길수	20,000
방	11	박영석	50,000	전	21	오원석	20,000
전	11	조한수	20,000	기	21	이상호	20,000
기	12	고인환	20,000	기	21	임현철	20,000
광	12	송진만	20,000	기	21	장명국	50,000
기	12	송치영	20,000	기	23	김복호	120,000
기	12	오승수	20,000	기	23	정구암	100,000
기	12	윤여훈	20,000	기	26	남경윤	20,000
기	12	홍만기	40,000	기	27	배기병	30,000
기	13	김광태	20,000	기	31	권오진	20,000
화	13	김선구	50,000	전	34	전상민	20,000
기	13	이형남	20,000	단체		14회후원회	2,000,000
화	13	임오혁	20,000	단체		30회동문회	500,000
화	13	정인창	20,000				

연회비 및 발전기금 2022년 3월 1일 ~ 3월 31일까지

상	1	권혁환	20,000	전	9	오옥균	20,000	기	16	남기섭	20,000
자	1	민승기	20,000	전	9	임세환(이사)	50,000	기	16	박태집	100,000
자	1	한훈동	20,000	전	9	장광용	20,000	전	16	성열찬	20,000
자	2	박등우	20,000	자	9	정회윤	20,000	기	16	윤석길	20,000
방	2	최병주	100,000	방	9	진한종	100,000	기	16	이계천	20,000
광	3	서한수	20,000	자	10	구자옥	100,000	기	16	이영훈	20,000
전	3	손영주	20,000	광	10	김선후	30,000	기	16	이재흥	20,000
전	3	신언영	20,000	전	10	김철진	100,000	기	16	이진구	20,000
전	3	염진영	20,000	전	10	배진수	20,000	전	16	장보환	20,000
자	3	이기복	30,000	광	10	이기성	20,000	기	16	지상무	20,000
전	3	이우정	20,000	전	10	최영관	20,000	배관	17	강영희	50,000
전	3	홍명표	20,000	기	11	전영봉	20,000	전	18	마수용	300,000
광	3	홍성민	20,000	자	12	김용구	20,000	금	18	신승은	20,000
광	4	금기붕	20,000	기	12	무기명	20,000	전	18	정철욱	100,000
방	4	송석범	100,000	방	12	윤창석	100,000	기	19	배영환	20,000
자	4	육성균	20,000	기	13	김영목	20,000	기	20	김동로	50,000
자	4	윤재원	20,000	기	13	김익수	50,000	기	20	박경하	100,000
광	4	지복만	20,000	기	13	마평춘	5,000	기	21	정종배	20,000
자	5	박돈서	20,000	전	13	정성태	100,000	기	22	방순천	20,000
광	5	변준섭	20,000	기	14	김교신	100,000	기	23	김효근	20,000
전	5	오성균	20,000	기	14	김근식	50,000	기	23	최재선	20,000
전	6	강병섭	50,000	기	14	김기홍	50,000	전	25	이승옥	20,000
자	6	김기영	20,000	기	14	김병갑	100,000	기	25	이재성	20,000
방	6	김상운	50,000	전	14	박세성	20,000	기	26	류한의	20,000
전	7	강석근	20,000	화	14	백낙두	20,000	기	28	윤수원	20,000
전	7	김기홍	20,000	기	14	송수헌	50,000	전	29	김병설	50,000
방	7	김민주(김이중)	200,000	기	14	이상호	50,000	기	32	강상호	20,000
자	7	김성헌	20,000	기	14	이상훈	50,000	기	33	이재상	20,000
방	7	류오열	20,000	기	14	이황훈	50,000	단체		26회동문회	100,000
자	7	안문용	20,000	기	14	진인기	20,000			무기명(2/22이사회)	100,000
방	7	이충모	20,000	기	14	최기숭	20,000				
전	8	배근석	100,000	기	14	최현국	100,000				
전	8	신의중	20,000	기	15	박 현	20,000				
전	8	이정식	100,000	기	15	황희종	50,000				
전	8	임헌표	50,000	전	16	공영권	20,000				
방	9	박천길	20,000	전	16	권오준	100,000				
자	9	서정식	20,000	금	16	김광희	50,000				
자	9	신영수	20,000	기	16	김석래	20,000				

회보광고비

2022년 1월 19일 ~ 1월 31일까지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정기총회 2022년 3월 1일 ~ 3월 31일까지

2월 회보 발행시 1월 연회비 및 발전기금 누락 부분이 있어, 이번호에 올려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상	1	오응수	100,000	기	12	한창원	100,000	기	15	서경원	50,000
광	3	서한수	50,000	기	13	김광시	100,000	전	16	김희곤	50,000
전	3	송의석	100,000	기	13	김학경	100,000	기	16	윤석길	100,000
전	4	이정근	50,000	기	13	송승용	50,000	전	16	한흥교	100,000
자	7	이재진	50,000	기	13	유병덕	100,000	기	17	이종우	50,000
전	8	육일균	50,000	기	13	이현철	100,000	기	21	유호문	50,000
전	8	이재범	100,000	전	13	정성태	100,000	기	24	남광덕	500,000
광	10	안주현	100,000	기	13	황순찬	100,000	기	24	정상복	50,000
기	12	전종현	200,000	기	14	이종업	100,000	기	30	이정근	50,000
기	12	정찬목	50,000	기	14	임화섭	200,000	기	35	김정규	50,000

단체	13회	동문회	100,000
단체	17회	동문회	300,000

회보광고비 2022년 3월 1일 ~ 3월 31일까지

전	18	마수용	200,000	기	21	김영훈	300,000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300,000				

KIA Movement that inspires
남대전 기아 서비스
자동차 검사 . 보험 수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4번지 (현대시험장)
TEL : (042) 282 - 1500 / FAX : (042) 282 - 1501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 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배작 및 수리 여러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 영 옥 (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그린플러그(주)
전기차 충전기 판매 · 시공
빠른 충전을 원하는 분들의 파트너
모든 종류의 전기차 충전기를
판매, 시공하는전문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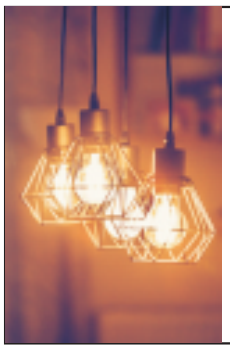
대표전화 :1533-2269
김영훈 이사 (21회) 010-8813-6905
주소 : 충남 논산시 연사면 계백로 2561

Mirmar coffee LOASTERS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e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네이버에 한방몰을 검색해보세요.
세계인의 슈퍼푸드 미국판매1위
건강선물! 노니원액
대표 박봉구(23회) HP 010.2415.4477 TEL 1566-7516
물류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1-10 공장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186
한솔바이오한방(주) 한방몰 www.hanbang-mall.co.kr under4477@hanmail.net

사회적협동조합
돌다리청림가
doldariro.com
돌청장애인보호작업장
기계과(15회)
서 경 원
생산(판매)품 카페운영, 빵, 우유 등 음료
직업재활훈련 제빵, 바리스타 등
전화번호 (주문) Tel 042)272-1006 Hp 010-5455-7531
E-mail gwseo590401@hanmail.net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돌다리로36(석교동)
후원계좌 하나은행/627-910017-54005 돌다리청림가 사회적협동조합(공익법인)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楨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Asung
(주)아성전기조명상사
대 표 표 광 열 (11회)
010-9252-1685
◆LED조명기구, 전선류
◆나노 배선기구
◆위너스 배선기구
◆번개표 조명
◆각종 전기용품도소매 총판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 4(대흥동)
TEL : (042) 253-1625 / 226-1625
FAX : (042) 222-1625
E-mail : asung430@naver.com

kt biz 공식파트너
HTM NET & COMMUNICATION (주)에이치티엠
정기채(기22회) 010-3411-7788
· 기업용 인터넷 기가오피스, 오피스IP, 네트워크보안
· 기업용 전화 인터넷전화, 일반전화, 전국대표번호
· 지능형 CCTV 영상 보안 감시
· 네트워크공사 신규사무실, 사무실이전 네트워크 공사
가입센터 1522-2536
www.happyinternet.kr

"충기 동문 선·후배님들 힘내십시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총동문회도 화합의 봄을 기대합니다.
20회 정밀기계과 김동로 010-2526-8033

NH NongHyup
농협홍삼
차장 김 병 설 (전. 29회)
010-5456-3966
면역력 향상으로 건강 증진!
한삼인 농협홍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88
TEL : 043-835-8585
FAX : 043-835-8536
E-mail : kbs-75@hanmail.net